

국내·외 업계 동향

■ 작년 동남아 산림화재로 오존파괴 물질 대량 발생

지난해 동남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림화재로 지구온실가스가 대량 발생, 대기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기상청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마트라섬의 경우 취화메틸 농도가 230ppt(1ppt는 1조분의 1)로 주변 해상의 20ppt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등에 사용되는 취화메틸은 성충권의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배출규제 대상인데, 식물과 토양 중에 남아 있던 성분이 화재로 인해 대기 중에 방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화재사고 지난해보다 12.8%나 증가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92건보다 12.8%가 늘어난 6,30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화재발생 원인별로는 가스화재가 7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1건보다 359.6%가 늘었고, 전기화재도 2,459건으로 14.3% 증가하였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355명으로 지난해의 437명보다 감소하였다.

이같은 화재사고의 증가는 IMF를 맞아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꿈나무 119 소방대」 제작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어린이를 위한 소방상식과 안전사고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만화로 엮은 책자 「꿈나무 119소방대」 5만부를 제작하여 시내 초등학교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 중국, 수재 피해 GDP의 3~4% 예상

중국이 이번 수해로 입은 피해액 규모는 중국 GDP의 3~4%에 해당하는 3백3억~3백60억달러로, 2차 산업분야에 대한 영향은 당초 예상보다 덜 심각하며 우려했던 경제성장률의 대폭 감소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수재로 인한 보험손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까지 집계된 보험손해액은 이미 2억4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올해 말까지 3억 6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재가 주로 농촌지역에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하면 보험손해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큰 것.

■ 세계보험회의 개최

IBM 글로벌보험사업부는 매년 유럽을 중심으로 개최해온 「제4회 세계보험회의」를 11월 4일부터 3일간 몬테카를로에서 개최한다.

금년의 제4회 세계보험회의는 「New World New Ways to Win」을 메인테마로 financial

service로의 변천, 그 상황, 방법론에 관한 많은 강연과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 보험업계 수입보험료

98년 7월말 현재 보험업계 전체 수입보험료는 20조 1,189억원으로, 그 중 생명보험은 14조 9,182억원으로 전체의 74.1%, 손해보험은 5조 2,009억원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

■ 하론대체기술에 관한 작업회의 개최

하론대체물질의 소화시험, 독성, 기술기준과 환경문제, 신소화제와 신소화기술, 실험실 규모의 연구에서 하론의 재이용까지 폭넓게 논문을 모집하고 있다.

- 주 쇠 : 미국 뉴멕시코대학 NMERI 지구 환경기술센터(CGET)

- 개최일 : 1999년 4월 26~29일

- 장 소 : 뉴멕시코주 알바카키

- 문의처 : NMERI/CGET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901 University Blvd. SE

Albuquerque, NM 87106-4339, USA

TEL 1-505-272-7250

FAX 1-505-272-7203

Email oliver@nmeri.unm.edu

인터넷 <http://nmeri.unm.edu/cget/>

■ 제2회 아시아태평양 연소학회의 개최

『21세기의 연소-글로벌 파트너십에 의한 진보』라는 주제로 연소에 관계된 분야의 과학기술자들의 참가를 모집하고 있다.

- 주 쇠 : 국제연소학회 아시아태평양지부

- 개최일 : 1999년 5월 9~12일

- 장 소 :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台南 (太湾)

- 문의처 : Professor Ta-Hui Lin

Department of Mechanical Eng.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1 Ta-Shue Road, Tainan, Taiwan 701

TEL 886-6-2757575, ext. 62167

FAX 886-6-2352973

EMAIL thlin@mail.ncku.edu.tw

■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고의성 여부 수사

울산시 소방본부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에서 96년 이후 모두 17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화재가 빈발하자 앞으로는 화인을 철저히 조사, 보험금을 노린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로 하였다.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모두 13개소로 이 가운데 8개업체에서 96년에 5건, 97년 8건, 98년 4건 등 17건의 화재가 발생, 막대한 소방력 손실은 물론 토양, 대기, 수질오염을 가중시켰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반드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보관장소에 소화용수시설과 오수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

행자부는 11월 30일 월동기를 맞아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래시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 안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실시할 것을 지시.

이와 함께 범국민적인 방화환경 및 안전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 말까지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서울 등 전국 7대 도시에서 열 계획이다.